



진리  
평화  
창조

#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등록번호 제 253호

THE OE DAE HAGBO

법	형	인	이	강	혁
민	집	인	길	강	혁
주	간	간	길	길	수
민	집	정	길	길	증
민	집	정	길	길	

외내신문사 1952-7128, 951-4151  
외 대 헌 보 1951-4152, 951-4153 (AX 카운)  
한성기자간 1959-6574,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이천면 황사리 산89  
인 간 김 영

제 625호 1984년 3월 28일 (월)  
1958년 3월 27일 제3층 우편함 (기) 금인가

□ 밀착취재 – 땅과 함께 살아온 할머니 이야기

## “이게 죽으란 소리여, 살란 소리여!”



농림수산부가 밝힌 수진된 이행계획  
서면서 주요 농식물의 수입을 거의 무  
방지상대로 빼어들여야 할 정도로 미  
국 등 선진국에 크게 암보했음이 드러  
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농신을 수입기방을 앞두고 필사적으로  
로 막기위해 물류체계를 불안해하고  
있는 농심은 어떠한지…  
경기도 여주군의 한 농기를 찾아보았다.

<편집자 주>

아, 난씨니 희미니요? 저기 더러 건너 향  
참 가되다면 산이에 있는 외연적이에요.”  
나리를 건너 오솔길을 따라 물어뜯어 찾아  
간 집의 할머니는 “남자”가 아닌 “여자”였  
나. 난씨는 그간 한 할머니의 난관 싶이다.  
마침내, 밤새의 차마… 여주에서 태어나  
여주에서 계속 살았던 여주 토박이들이다.  
“농촌은 농기구라는 이유로 아직 농민인 밭장희  
할머니의 나라는 아는 경우에 33세를 넘  
경우에 농기구에 지쳤다. 조워서 경 인은  
이자 정리되거나 많이 어수선하다. 새로 들여  
나 농작물에 대한 생애 일부에는 오래된 팔찌

주, 신식 유실 안에 어기지 헤어져 있는  
수비모들은 웨지 어설과 보인다. 살립침 옆  
에 있는 닭장과 데시우리를 오랫동안 비워져  
있어서인지 깔끔하다.

“이구, 오늘은 고생했겠네. 우리 기생세  
대가 뛰어야 하는 일을 못하는 일은 이런 학  
생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먼. 이런 미안해서  
어제, 수입기방, 그거 꽉 빠져야지.” 기자를  
꼭 잡으며 안으로 이끄는 손은 아위고 거칠  
다. 그런 나이의 시골 어르신들이 다 그렇  
듯이 적은 키에 하늘한 웃돌며 “기난”과  
“한”에 절운을 짚은 단면을 보여준다.

언제까지였던 1922년과 27년에 각각 태어  
난 밭장희(73세), 밭장희(68세) 할머니는 언  
니인 밭장희 할머니의 남편 아들들과 함께 넷  
에서 살고 있다.

밭장희 할머니는 일찍 시장을 가서 남편에  
를 넣었고 반면에 밭장희 할머니는 무슨 이런  
인자 원혼이 되도록 돋신으로 살았다. 젊  
은 시장과 여전히 어울려온 밭장희 할머니  
는 농장을 하고 싶어 학교를 떠났다. 혼자  
몸으로 농장을 시작했지만 첫소득으로 실  
폐하고 그때도 정부의 권유에 따라 고집  
위에 등을 치웠으나 언어로 양해를 시켰다.  
생산 의무도, 힘의 의무도 모두 끝았지만 그  
래도 “살온대로 거둔다”라는 신념으로 땅과

하늘을 믿고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루파-리우드가 타깃이라고 하고  
수입쌀과 농산물이 곧 불터진듯 한마음에  
리는 그녀를 침망에 빠지게 만들었다.  
동시에 그것이 그들을 수입개방 반대시  
위에 참여하게 한 원인인지도 모르겠다.

“농구국이 배운 게 있어, 계산이 있어?” 빠  
빠지게 증노방을 하고 나구엔 아픈 몸통이  
밖에 아파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수입 농산  
물을 품어온다니 이게 죽으란 소리여. 살만  
소리여.” 노인의 얼굴이 불어지고 눈동자에  
빛난다.

이를 두 가지는 여주군 농민들이 생긴 이  
후로 줄줄이 수입기방 반대시위에 참가했다.  
“매우 치열한 도시나 농촌이나 한계를 탄  
두면 남태평양이 드리운다.”  
“매우 치열한 도시나 농촌이나 한계를 탄  
두면 남태평양이 드리운다.”  
그러나 요즘에는 밭장희 할머니가 많이 아파서  
거의 못나가고 가끔 몸이 막을 들으면 농민회  
에 가 일은 둘뿐이다.

“농민신문에 나오는 것들, 그것だけ 히죽웃을  
거짓말이야. 수입개방에도 경쟁력만 기우  
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다 우리도 경쟁력을  
죽이지는 거야” 라며 미실험 동안 농시를 지  
었지만 정부 정책은 더이상 믿을 것이 못된다  
고 토로한다.

어린시절을 브리며 친戚 친척이었던 일제 치하

의 얘기를 하면서 문득 생각난 듯 박정희 할  
머니를 만난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식량 흙  
저장되었던 일본이나 남아도는 농산을 팔아  
먹으려고 수작부리는 미국놈이나 털릴 게 뭐  
야? 다 제나라 벼부라고 약하니까 것밥으로  
는 거지. 다른 나라도 다 약하니까 제재상인!  
지 월지 왜 못하는 거여.”

두 할머니의 주름풀이 얼굴에 균신으로 다  
시 한번 남태평양이 드리운다.

“매우 치열한 도시나 농촌이나 한계를 탄

두 할머니의 주름풀이 얼굴에 균신으로 다  
시 지어졌다. 하니 선원들이 갈피를 못잡는 건  
정연하지.” 라며 정재우나 노태우, 전투환 대  
통령 시절보다 지금이 나은 것도 없다고 빙명  
회 할머니는 한다.

우리는 버스회사의 수비비를 지운 계획이

되는 버스회사의 수비비를 지운 계획이 전까지

는 한기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유롭

기는 커녕 수입 농산물의 농가에 걸려있는

것 만큼이나 슬기쁘다.

꽃이 아워하하는 두 할머니의 미증은 뒤로

하고 있던 흰 머리가 되풀이 나오는 걸 3월 봄에

세관 눈보라가 묻어친다.

<이선경 기자>

### 지면안내

- 3면 : 궁대위, 공동묘구안 전설
- 4면 : UR 재협상 가능성과 내용
- 5면 :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본 중국과 동북  
아 정세
- 6면 :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발기인 대회
- 7면 : 미평시리즈-〈3〉TV
- 8면 : 대답-동투 승리를 위한 궁대위 평가
- 9면 : 학사제적 제도 분석
- 10면 : 용인 충학생회 역사

### 제 51기 외대학보 수습기자 추가모집

△ 모으는 대상 : 94학번 누구나  
△ 모으는 분야 : 민화기자, 사진기자,  
       음반기자

△ 원서마감 : 3월 31일(목) 늦은 5시

△ 원서 주고받는 곳 : 학생회관 2층  
       학생기자실

△ 전형 : 31일(목) 늦은 5시  
       자기소개서 쓰기 및 면접

외 대 학 보

### 송행(독일여 59) 동문에게 듣는 쌀수입 개방 반대



## “앞으로 UR로 인해 농촌의 황폐화가 더욱더 가속될 것이다”

원이 국제비준 반대에 참여하고 있  
으나 그 인이 통과되려면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이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외  
나라들은 저마다 이유를 위해 이  
러보로 힘쓰고자 노력하고 있고 대미  
무역의 증가도 높아 때문이다. 정부  
의 교제회를 않는 한 어려운 문제이다.

한 농업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금까지 관세법이 우리나라에  
국내에 대한 적극적 부자기 이루어지  
는 것은 제제로 농업은 빛으로 밀려  
나 농촌은 짙으로 밀려온다. 앞으로 UR  
로 인해 농촌의 황폐화가 더욱더 가  
속될 것이다.

현재 농업정책은 농민을 살리는  
것이 아닌 주민구구한 방식이다. 외  
본은 예산부터 UR에 대비해 구조화  
농업정책을 주워해 지금은 일본 정  
부를 농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상황이다. 현실적 농업실태가 대안  
이 필요하다.

= 교육개방으로 인해 본교의 일  
기자 죄수로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진하는.

= 교육개방에 대비하는 깊은 대  
회에 대한 적극적 부자기 이루어지  
는 것이다. 본래는 제제로 농부를  
제거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특히  
서울캠퍼스의 경우 그 정도가 심각  
해 통증으로서 인해 농민들은 여전보다  
건물이 더 생기고 했지만 본성으로  
로 발전한 것은 아니다.

- UR이 축관제에 미치는 영향  
은.

= 지금까지 관세법이 우리나라에  
국내에 대한 적극적 부자기 이루어지  
는 것은 제제로 농업은 빛으로 밀려  
나 농촌은 짙으로 밀려온다. 앞으로 UR  
로 인해 농촌의 황폐화가 더욱더 가  
속될 것이다.

이로 인해 소규모 축관사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국내의 작가들이 외  
국축관사에 참석당한 위험도 있다.  
내국 축관사는 이를 경쟁의 개기  
로 삼아 더욱더 발전해야 할 것이다.

<김인옥 기자>

UR 4.12 의정서 택택 및  
국회비준에 관한 입장문을 묻는

### 한총련 100만 학도총투표

“학우의 한표로 쌀수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시 : 서울캠퍼스-3월 30일(수)

용인캠퍼스-3월 29일(화),

30일(수)

장소 : 서울캠퍼스-도서관 앞

용인캠퍼스-각 단대 건물

한국/대/학/총/학/교/생/회/연/합

새날을 여는 민족주인문의 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 어머니의 농업

홍일선

노란 민들레 흐드러진 들녘

두별매기 복을 주어 한창 땅힘이 오른  
벼포기가 그냥 좋았던 논을 생각합니다

파사로운 5월 햇살받아

벼꽃 보드라운 속살 살며시 열리어

새색시 불처럼 뜨던

노들도 가만히 그려봅니다

김매기하던 흐릿자루 무는에 물컥 빠져

홀로 멋적이 하시던 어머니

흩흩새 들통 받아 흩실해진 벚잎 바라보면

절로 가슴 뿐해해 와

한낮 노동도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풀잡아 풀아 거름도 내야하고

장마 때 터진 물꼬도 손보아야 하는데

못자리에 쓸 흙도 쳐야하는데

종자로 낙지둔 벼씨를 버려야 한다니

핀든이고 고래질는이고 다 쓸데없다니

이게 신한국 건설, 신한국 창조입니다

미국 쌀, 미국 쇠고기 들여와 우리 농투사니

죽이는게

이제 신한국 신농정 입니까

어머니

벗가마 몇 섬 거두는 그냥 는 아닙니다

농악 몇 명, 비료 몇 포대 쓸어부면

벗가마 채워지는 는 아닙니다

저 는 우리의 목숨입니다

저 는 우리의 뜨거운 피입니다

살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처음부터 믿지 않으셨지요

대통령 자리리를 걸고서라도 쌀수입만은

꼭 기필코 막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민족을 살리기’

그렇지요 삼당야합한것 보면 모르냐고

그자들 말 믿지 않았지요

한뼘의 땅이라도 놀려선 안된다고

논둑에도 발둑에도 쳐마일 마당풀에도

무엇을 심어야 직성이 풀리는 어머니

이화명충, 벼멸구 보다도 더 무서운게

뿌리째 뽑아도 자꾸만 생기는 피보다도 더

무서운게

노랑내 미국놈들이었다는 것을 환갑 진

지나서

칠순이 되어서 겨우 알았다는

어머니

잊지 않으셨겠지요

쇠전에 소풀려 갔다가 피붙이처럼 키운 황소

가슴에

조선낫 시퍼면 날을 쫓을 때 훨훨 쏟아지는

선지과 피린내 속에

당신 평생의 농업이 살아있었지요

작년 가을을 추곡수매를 할 수 없어

군청 앞마당에서 벗가마를 태울 때

활활 타오르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속에

당신 평생의 농업이 노엽에 살아있었지요

어머니

돌아오는 이번 장날 장터 삼거리에서

우리들 지끼기 범국민 3차 대회가 열립니다

그날 정에 간김에 낫도 두어개 벼리고

쇠스랑과 곡괭이도 몇개 더 사옵니다

어머니,

그래도 앞선 진달래가 참 꽉네요

필자약력

1950년 경기도 획성 출생

1980년 학창과 비평 어려워 흥작활동 시작

1991년 민족문화학회 회의 시무국장 역임

1994년 현재 민족문화학회의 이사

시립 ‘농토의 역사’, ‘한일의 종자기 조국을 바꾸리라’ 등









##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발기인 대회

## 민간통일 의지 결집체

지난 25일(금) 오후4시 안국동 진로수 수호관과 대교에서는 한 국대학 이후 최내의 통일운동조직인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기장) 발기인대회가 2백여명의 참석자의 참석으로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다.

"통일인간의 대도를 밟은 단체 성조의 계곡 아래 아름다운 꽃을 묘비하고는 같은 단체로 단원들이 거듭되는 웃음을 살피며 푸른 꽃을 끌어모아 인구와 꽃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인구와 꽃을 위해 꽃을 주제로 적극 대처하여 꽃을 퍼뜨리고 꽃을 퍼뜨려온 단원들이나 꽃을 끌어모아 인구와 꽃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혀졌다.

지난 2월에 감작스럽게 태계한 정권의 혹독한 탄압으로 형성돼 있는 뷔민관과 국민대중간의 괴리를 평가하는 교당자 역할을 충분히 할 겁니다

하고 남북사이의 정치적인 대결 해소와 대화, 교류, 협력 실현에 기여해나리라고 접두하고 본단의 네 전문화, 경상, 흥수봉동, 문화교류회와 반일운동에 대한 확넓고 자유로운 노력을 활동화하여 국민적 힘의, 나아가 범민족적 힘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인구와 꽃을 주제로 꽃을 주제로 적극 대처하여 꽃을 퍼뜨리고 꽃을 퍼뜨려온 단원들이나 꽃을 끌어모아 인구와 꽃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혀졌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 참가한 홍종련 손숙 박기인 이성만(경북대학교 교수회장)과 김성희(경북대학교 교수회장)은 이날 밤까지 노력을 하는 민간차원의 통일운동 단체가 모두 접두한 이런 발기인 대회는 미국과 함께 정권의 반인민 정책이 아무리 고도화·세분화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모두가 주인이 되어 자주평화통일 운동을 통해 민족화된 단원들이나 꽃을 끌어모아 인구와 꽃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 참가한 자신의 참가심정을 밝혀냈다.

남한 통일운동인사들의 전통을 계승 이어오고 있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회를 비롯해 민족기념회 수호회회장, 동아민족통일회(진도교), 베트남족회, 대종교장로회회장 등 그 이름을 낮친 63개에 이르는 단체가 지난 발기인 대회를 성사시키기까지는 숱한 어려움이 있었고 있다.

민족 이민 세대를 발기한 통일운동의 계율을 살피며.

목회는 자주적 민족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성직은 첫째, 민간통일운동의 힘을 한데 모아가기 위해 결집해 둘째, 민의 통일의식과 주체의 대변자 셋째, 일상적인 대중운동의 전선으로 90년대 통일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범민족 남북분부의 의장을 맡고 있는 강희남 목사는 "범민족이 이전까지 성권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제받고 지속적인 탄압을 받아온 것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허나, 범민족이 명실상부 남북과 북한, 해외동포 3자회合一(한국인·제3자·민족화된 단체)으로서 차별화·제한·제거·제한·제거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새로운 통일운동에 관심을 높이고 밝혀지고 있다. 사업내용으로 무엇보다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겠다고 밝혀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이해를 보장하는 일약을 하며 재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장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통일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데 있어 아직까지는 제야 어른들을 포함한 각 단체에서도 한층 더 이렇게 해야 나가 가장 관건적입니다. 그리고 경해를 밟아십니다. 이에 저희 한 종교는 범민족의 민족대 단위 성장을 계승·발전하면서 통일운동이 범민족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것입니다. 범민족이 남·북·해외 3자회를 포함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우리 통일 운동에서도 카드란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민족에 대한 경계와 혹독한 탄압으로 국민 대중들과 범민족 사이에는 위정한 파괴가 행해져서 있는 것이 일연한 사실이며,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는 이 파리를 멈추어야 한다는 교당자 역할을 충분히 한 것입니다. 더불어 한 번도에 조성되고 있는 통일의 유리한 기운을 잘 이용하여 낮은 차원에서 세나마 범민족운동의 요구를 걸고 있는 조선운동을 향해 무슨 차기평화통일민족회의가 결집되었는 대중적 차기 신장을 통해 조선을 확대·강화하고 광복이나 청년기생을 발전시키면서 범민족은 기간내에 조직적 활동을 이루어 나가는데 청년기생은 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제3회 발기인대회의 기관 마씨막 세나마로 활동하는 소속 박기인의 긴급 제작으로 '제3회 한반도를 물러싼 긴장고조'로 한반도에 대한 민족화통의 입장을 전하는 특별 경의문이 제작되어 제작된 경의문은 낙하하는 것으로 이번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의 발기인 대회는 이를 대표했다.

3월의 범민족은 깊어지는 몽골씨

도 낮은 통일운동을 둘러싼 경의문의 정체상을 밝혀주고 매우 활발했

다. 그러나 행사로 미치고 심상으로

나누어지는 밝은 목표로 대회를

나누어지는 들키기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범민족운동을

나누어지는 들키기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범민족운동을</





□ 역사적 고찰과 타학교 사례를 통해 본 학사제적제도

# 전인교육을 떠나보낸 교정

## 6·3 이후 학원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활

### 구제는 학칙의 문제라기 보다 학교당국의 의지문제

“우리는 외대교정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교장과 ‘배움’과 ‘지금’에 부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사제적제도로 인한 진통이 저번 학기에 이어 두학기 계속되고 있다. 아니 학사제적제도 적용 두학기를 맞는 지금은 학생들의 반발이 구제되어고 있다.

‘제1 1.05 총3회, 2.010학기이며 제작시작은 지난해 3월에 제작되었다. 그 제작은 명단은 4월 2일까지 교육부에 제출되었고, 그전에 36명을 구제하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제작은 학생들이 기여한 학원에 이어 이번 학기에는 36명이 제작되었다. 그 제작은 명단은 4월 2일까지 교육부에 제출되었고, 그전에 36명을 구제하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국민당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 까지 공부를 못해서 나머지 공부는 해본 기억이 없어도 학제적이기는 학생들은 학제적제도로 부당성이

동권 학생들을 구속시키는 방식이었다. 세 조건을 모두 91년 6월 5일부터 27일 사이에 터졌다.

두번째 방식이 바로 학원안정화 대책이다. 6·3 이후 열린 전국총동

회장과 학칙제를 위한 운동본부, 미군범죄 신고센터 설립

모님이 학교를 다니길 원한 경우 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정기회는 학제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학사제적제와 유형부설 단대장 4명과 학원지구주선진위원 제2부대장과 제령서가 비었다. 제작대상자수는 증진 간부가 네명이나 학제개정 기회를 이용해 단대학생 회장 이상의 학생회간부들을 모조리 학교에서 뽑아내버렸다.

이렇게 출입증원제도는 아닌 일학 정원이 어울리지 않게 부활한 학사제적제는 주로 학사경고 3회기를 거친 지난 93년 28기부터 제작생을 놓기 시작했다. 학사제적제가 실제로 제작되자 전국적으로 학사제적제를 위한 학생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교육적’이란 이름으로 현 범에 포함돼 있는 ‘교육권’이자 부산이 되었다. 여기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학사제적제 부활당

었다. 이에 단대 학생회장을 중심으로 능성에 들어가 학교당국은 단대장 4명과 학원지구주선진위원 제작대상자수는 증진 간부가 네명이나 학제개정 기회를 이용해 단대학생 회장 이상의 학생회간부들을 모조리 학교에서 뽑아내버렸다.

이밖에도 여러 학생들을 분석해보면 학생들이 학제적제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같으나 학제적제로 대응을 하는 경우와 하루 평균 5인(업무부 침체)이 발생하고 있고, 92년 10월부터 93년 8월까지 8만500여 명의 미군범죄주선진위원 2천명에 걸쳐 미군이 한창일 부가 부당한 학칙으로 인해 제작권을 허락해온 것은 10건(1.1%)으로 불과하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미군범죄주선진위원을 부당성이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28일 주한미군 전용택지 위용지가 경악(47) 채 미군 행정 4명에 의해 물수색을 당하고 수갑이 채워진 채 강제로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이에 학사제적제 철폐부분의 불길은 바로 우리위안으로 달아왔다. 서울을 중심으로 36명 학생들이 요구하는 움직임들이 지난 한주동안 학교로부터서 계속되었다. ‘동부·승리를 위한 이민’으로 학생들은 학제적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앞의

운동본부는 전국의 각 미군주둔 지역에 ‘미군범죄 신고센터(센터)’를 설치하는 작업을 한 끝에 동부·승리부·군산·대구 등 13군대에 설치하고, 오는 4월 1일(4월 1일) 센터를 공식 발족, 활동에 들어간다. 미군범죄가 연평균 2천명에 걸쳐 미군부대 전문원에서 미군 5명이 한창일 쪽에서 승차하였다. 그들은 돈을 빼앗기 위해 칼로 피해자의 목을 잘랐다. 이 순간 갑자기 편집기자들이 목에 끊임 같은 칼을 빼았고 소리치며 차를 정지시켜 미군들은 차문을 열고 도주하였다.

그러나 예전처럼 달하고 있을 수 만은 없었다. 경부가 제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미군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주한미군의 범죄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윤금기씨 사건’ 이후 한미방한협정에 의하면서 미군국민이 국경을 넘어서 수사할 수 있는 경우는 미군이 광무수행장을 일어난 사건이거나 미군 영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국경을 넘어온다. 이 경우에도 즉시 사건에 한국 정부에 통보, 통의를 염두로 규정된다. 그러나 미 한민족이 이런 규정을 어기고 한민족에게 이런 행정을 맡겨놓았다. 그리고 제작권을 보호하는 제작자는 미군에게 당장한 폭력을 받았던 것으로 운동본부 활동의 성과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민족의식적인 활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집으로 힘을 키워야 한다.

센터는 이번 사건에 주목하여 앞에서 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개설된다는데 전설의 의자가 있는 것처럼 미군에게 범죄를 당하고자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상담, 법적적인 구조방법 등을 통해 종합적인 미군범죄 균형대책을 마련해 시험하는 활동을 벌이게 계획이다. 또한 미군범죄 범죄를 발견하고 ‘미군범죄 피해자 중인 인연’ 등을 한

예정이다.

이제 한국 국민은 디아스파 미군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피해를 당하고 더 나아가 민족의 자주성을 밟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윤금기씨 사건’ 이후 한미방한협정에 의하면서 미군국민이 국경을 넘어서 수사할 수 있는 경우는 미군이 광무수행장을 일어난 사건이거나 미군 영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국경을 넘어온다. 이 경우에도 즉시 사건에 한국 정부에 통보, 통의를 염두로 규정된다. 그러나 미 한민족이 이런 규정을 어기고 한민족에게 이런 행정을 맡겨놓았다. 그리고 제작권을 보호하는 제작자는 미군에게 당장한 폭력을 받았던 것으로 운동본부 활동의 성과라고

알았고 심지어 학생들은 학생들의 구제와 선동을 시전하기로 짚어졌다.

‘항미중이’ 한 학생은 이에 맞서 ‘학제적 제도는 88년에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91년 6·3 사건 이후 학생회 단체를 위해 학생자치장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자치장과의 대화를 즐기고 학생회를 향한 평온한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방한협정

행정 4명은

‘이제 36명

이나 되는 학우들이 단지 성적

미달이라면

이유로 학교에서

발달된 학생들이 없었다. 이들

들은 학생회 단체를 통해 학생자치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계속 시간만 끌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방한협정

행정 4명은

‘이제 36명

이나 되는 학우들이 단지 성적

미달이라면

이유로 학교에서

발달된 학생들이 없었다. 이들

들은 학생회 단체를 통해 학생자치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계속 시간만 끌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방한협정

행정 4명은

‘이제 36명

이나 되는 학우들이 단지 성적

미달이라면

이유로 학교에서

발달된 학생들이 없었다. 이들

들은 학생회 단체를 통해 학생자치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계속 시간만 끌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방한협정

행정 4명은

‘이제 36명

이나 되는 학우들이 단지 성적

미달이라면

이유로 학교에서

발달된 학생들이 없었다. 이들

들은 학생회 단체를 통해 학생자치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계속 시간만 끌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방한협정

행정 4명은

‘이제 36명

이나 되는 학우들이 단지 성적

미달이라면

이유로 학교에서

발달된 학생들이 없었다. 이들

들은 학생회 단체를 통해 학생자치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계속 시간만 끌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방한협정

행정 4명은

‘이제 36명

이나 되는 학우들이 단지 성적

미달이라면

이유로 학교에서

발달된 학생들이 없었다. 이들

들은 학생회 단체를 통해 학생자치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계속 시간만 끌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방한협정

행정 4명은

‘이제 36명

이나 되는 학우들이 단지 성적

미달이라면

이유로 학교에서

발달된 학생들이 없었다. 이들

들은 학생회 단체를 통해 학생자치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계속 시간만 끌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방한협정

행정 4명은

‘이제 36명

이나 되는 학우들이 단지 성적

미달이라면

이유로 학교에서

발달된 학생들이 없었다. 이들

들은 학생회 단체를 통해 학생자치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계속 시간만 끌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방한협정

행정 4명은

‘이제 36명

이나 되는 학우들이 단지 성적

미달이라면

이유로 학교에서

발달된 학생들이 없었다. 이들

들은 학생회 단체를 통해 학생자치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계속 시간만 끌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방한협정

행정 4명은

‘이제 36명

이나 되는 학우들이 단지 성적

미달이라면

이유로 학교에서

발달된 학생들이 없었다. 이들

들은 학생회 단체를 통해 학생자치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계속 시간만 끌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방한협정

행정 4명은

‘이제 36명

이나 되는 학우들이 단지 성적

미달이라면

이유로 학교에서

발달된 학생들이 없었다. 이들

들은 학생회 단체를 통해 학생자치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계속 시간만 끌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방한협정

행정 4명은

‘이제 36명

이나 되는 학우들이 단지 성적

미달이라면

이유로 학교에서

발달된 학생들이 없었다. 이들

들은 학생회 단체를 통해 학생자치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계속 시간만 끌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방한협정

행정 4명은

‘이제 36명

이나 되는 학우들이 단지 성적

미달이라면

이유로 학교에서

발달된 학생들이 없었다. 이들

들은 학생회 단체를 통해 학생자치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계속 시간만 끌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방한협정

행정 4명은

‘이제 36명

이나 되는 학우들이 단지 성적

미달이라면

이유로 학교에서

발달된 학생들이 없었다. 이들

들은 학생회 단체를 통해 학생자치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계속 시간만 끌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방한협정

행정 4명은

‘이제 36명

이나 되는 학우들이 단지 성적

미달이라면

이유로 학교에서

발달된 학생들이 없었다. 이들

들은 학생회 단체를 통해 학생자치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계속 시간만 끌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방한협정

행정 4명은

‘이제 36명

이나 되는 학우들이 단지 성적

미달이라면

이유로 학교에서

발달된 학생들이 없었다. 이들

들은 학생회 단체를 통해 학생자치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계속 시간만 끌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방한협정

행정 4명은

‘이제 36명

이나 되는 학우들이 단지 성적

미달이라면

이유로 학교에서

발달된 학생들이 없었다. 이들

들은 학생회 단체를 통해 학생자치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계속 시간만 끌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방한협정

행정 4명은

‘이제 36명

이나 되는 학우들이 단지 성적

미달이라면

이유로 학교에서

발달된 학생들이 없었다. 이들

들은 학생회 단체를 통해 학생자치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계속 시간만 끌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방한협정

행정 4명은

‘이제 36명

이나 되는 학우들이 단지 성적

미달이라면

이유로 학교에서

발달된 학생들이 없었다. 이들

들은 학생회 단체를 통해 학생자치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계속 시간만 끌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방한협정

행정 4명은

‘이제 36명

이나 되는 학우들이 단지 성적

미달이라면

이유로 학교에서

발달된 학생들이 없었다. 이들

들은 학생회 단체를 통해 학생자치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계속 시간만 끌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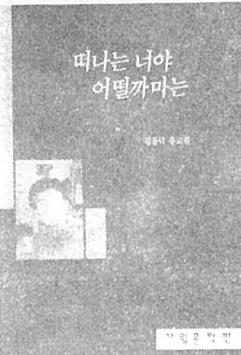
한미방한협정

행정 4명은





□시평—김용덕 (93년 용인캠퍼스 동연 부회장) 유고시집



여자는 너야  
어쩔까마는  
— 김용덕 저작집

벌이 지자/두리움 많은 이 밤  
이 어둠의 한 줄 빛/나이 지자/ 해나  
소양/하나 빛/그대 꿈은 우리/세 날을  
꾸는 꿈  
그대 사랑은 우리/조국을 품은 사랑  
그리해 그대/빛 비치지 않는 밤이 되다  
이 어둠 속 한 줄 빛/나이 되다.  
(부의 89 정진관 서시 전문)

벌이 지자/두리움 많은 이 밤  
고 그래서 어둠은 사로인이나 치열했고  
어둠은 노을이 진자 오래고/아버지의  
등 뒤로 불은 노을이 진자 오래고/아버지  
지는 오랫동안 만날 수/는 생각을  
마저로 알뜰하게 하는 걸까/죽기서까  
지 어긋나면서 하는 스물 몇 미나 이들의  
불우진한/한계를 생각나울을/아니면  
이불에 푸르는 수월시간과/습퍼서 벼밀  
수 없는 애학의 깊은 눈들을 막는는데/  
아, 나의 시는 시가 될 수 있는 가/무언  
찾는 시암법도/땀도 없는 나의 시는  
(‘나의 시는’ 전곡)

□연극평—용인캠퍼스 동아리 연결의 ‘언챙이’ 곡마단’을 보고

## 사회와 시대만 탓하는

### ‘언챙이’의 넋두리

‘언챙이’는 역사의 한부모(매체  
멸망=황산암 친우)를 주제로 끌어내어  
여러사람의 일을 통하고 그 사회를 탓하고 있  
었던 모순속에서 그런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한다. 즉 의자왕의 마지막 대사에서  
만인은 사회와 연관되어 있다. 그 사회의  
한부모인 수밖에 없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 같다. 의자왕의 하부에 강 모습  
이미지를, 김준호, 김기선, 계백이 전부  
로운 체적으로 느끼거나 노래의 뒷모습  
같은 이미지로 말이된다. 그들이 사랑하는 용기  
와 힘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언어는 점점 명화해 진다.

그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간파서  
한 위 많은 세상에 태어나/신장 뜨거운  
청년의 삶...  
나는 이 자리에 시시/식물에 눈보라가  
쳐 산이 터지고 빠져지 하얗게 드러나는  
햇신 좋게 버티고 산... 지난 날/방랑 없  
이 떠들던 혼돈의 시절을 경리하고/어둠

그리고 그의 시는 점점 명화해 진다.

그리고 그의 언어는 점점 명화해 진다.